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분석 - 청소년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윤영*

요약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이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 만족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과 청소년활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활동을 9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사회적 위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활동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신체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은 낮아지고, 청소년활동도 많이 한다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과학·정보활동, 모험·개척 활동, 진로탐색·직업체험 활동, 건강·보건활동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사회적 위축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방과 후 활동에서 찾고 그 경로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위해 연구의 결과가 활용되길 기대한다.

주요어 다문화사회, 청소년, 신체만족도, 사회적 위축, 청소년활동

1. 서론

한 국가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그 나라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면에서 정치,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기재이다(김상욱 2010: 1). 그런데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는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 변동의 추세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박중서 2022: 74-75), 구조적 측면에서 본다면 출생률 및 사망률의 변화로 인한 고령화 계층의 급격한 증가이다. 또한 인구 속성, 즉 구성원의 다변화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특성도 볼 수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역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년간 국내체류 외국인 수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이들은 2009년 117만 명에서 2014년 180만 명, 그리고 2019년에는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어서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국민의 4.9% 수준으로 나타났는데(통계청 체류외국인 현황¹)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간주한다. 무엇보다 결혼이민자의 증가 및 다문화 가족의 확산이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한국의 결혼이민자는 20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4년부터 시작된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사증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영향에도 매년 증가하여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결혼이민자 현황²). 이에 따라 2020년의 경우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7.6%(16,177건)를 차지했으며, 전체 출생 중 다문화 출생의 비중은 6.0%(16,421명)로 2010년 4.3%(20,312명)에 비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보도자료 2021.11.08).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출생의 증가는 곧 다문화가족의 2세인 다문화아동 및 청소년, 요컨대 다문화 학생의 증가를 의미한다. 최근 10년간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46,954명에서 2021년 160,056명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씩 증가하여 10년 사이 3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전체 학생 중 다문화

1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검색일: 2022.04.13.).

2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검색일: 2022.04.13.).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21년 0.7%에서 2021년 3.0%로 4.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나영 2021: 12).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다문화 학생 대학생 멘토링 실시, 한국어교육과정 도입 및 한국어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중학교 진입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교육부 2021).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 학생은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122,212명의 다문화 학생 중 학업중단자는 1,263명으로 1.03%의 학업중단율을 보였는데 이는 비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 평균 0.94를 웃도는 수치이며 특히 진학 및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0.87%)보다는 중학교(1.34%)에서, 또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1.91%)에서 더 높은 수준의 학업중단율을 보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중단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중앙다문화교육센터³). 무엇보다 학업 중단 다문화 학생 세 명 중 한 명은 학교 부적응이 학업중단의 이유라는 점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세 명 중 두 명이 부적응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0).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높이기 위한 요인을 찾고 다문화 청소년이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느끼는 문제 중에서도 학교생활 및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 다시 말해 사회적 위축에 주목하였다. 이때 사회적 위축은 불안, 부정적 자존감, 외로움, 우울 등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이고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Rubin et al. 2009: 3). 특히 사회적 위축은 다수집단 속에 있는 소수집단(minority group)으로서 겪게 되는 소외

3 <https://www.edu4mc.or.kr/guide/stat.html>(검색일: 2022.04.13.).

와도 연관된다고(Rubin et al. 2009: 3) 볼 수 있는데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차별적,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새로운 집단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2차적 배제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그리고 이후 미래의 삶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이와 관련된 요인을 찾아볼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그런데 사회적 위축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외모, 특히 신체만족을 관련 변수로 제시한다. 신체만족도는 용모와 관련된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으로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라 할 수 있는데, 돈트와 티그만(Dohnt and Tiggemann 2006)은 외모와 신체에 대한 만족감은 대중매체나 유의미한 타자 등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사회적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김영미 2020: 57). 특히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또 불안한 자아정체감으로 인해 자신과 유사한 또래집단에서의 소속감을 추구하고자 하며,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인식은 가치관, 감정, 행동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위은하 2015: 209).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신체만족도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 요인이라고 보며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신체만족도는 외모, 즉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으로서 자신이 스스로 외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평가(김영미 2020: 57)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변화가 쉽지 않다. 사회적 위축 역시 다른 사람의 사회적 신호를 해석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접촉을 시작하고, 친사회적 행동에서 성공을 경험할 확률(Watson and Nesdale 2012; 류도희 2022: 275 재인용)과 연관된 만큼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통한 지속적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상 활동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사회

적 위축과의 관계에 있어 청소년활동의 역할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도 청소년의 학교 밖 활동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변화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내고, 미래의 건강한 성인으로 준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전명순 2017: 18) 부각되고 있어, 신체만족도,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요인으로 청소년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 요인을 청소년활동에서 찾아보기 위하여 다문화 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신체만족도, 사회적 위축, 그리고 청소년활동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연구의 결과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적 위축과 신체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축, 회피, 어려움 등을 의미하는 데, 사실 196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부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예측변수는 아니었다(Rubin et al. 2009: 2). 그러나 사회적 위축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시선, 상호작용과 같은 외적인 요소와의 관련성이 깊다는 것이 알려지고, 또래 집단 반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이 개념은 주목받기 시작했다(Rubin et al. 2009: 2). 힌데(Hinde 1987)의 경우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관계의 양상, 자신에 대한 평판, 친구집단에서의 위치 등과 관련된다고 보았고, 유사한 의미해서 루빈과 아센도르프(Rubin and Asendorpf 1993)도 사회적 위축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되며 친구 집단에서 소외됨으로써 겪게 되는 내적인 불안, 걱정, 낮은 자존감 등의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하마사키 외(Hamasaki et al. 2021)는 일본사회에서 히키코모리

과 관련된 사회적 위축은 90년대부터 중요한 사회심리적 문제가 되어왔다고 보며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하였고, 영스(Youngs 2013)는 제한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사회적 위축의 특징으로 보았다. 즉 사회적 위축은 영속성을 가진 심리적 변인으로 한번 형성된 사회적 위축은 장기적으로 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나은·김원영 2020: 62; Rubin et al, 2009)는 속성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위축은 지속될수록 내면화되어 친구관계 형성에 저해 요인이 되고, 또래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면서 사회적 기술 및 심리사회적 발달의 어려움을 가중화 할 수 있다는(Barzeva et al, 2019; 류도희 2022: 274)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힌다(박기원 2014). 이처럼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쿨리(Cooley), 미드(Mead)의 관점도 고려해볼만 한데 쿨리(1902) 역시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사회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설명하였고, 미드(1934)도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을 통해 타인이 그들을 보듯이 자신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자의식을 발전시킨다고 설명하며 타자가 바라보는 상징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반응이라는 면에서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자존감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바우커 등(Bowker et al, 2012)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위축이 우울, 불안, 외로움, 낮은 자존감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았고, 넬슨(Nelson 2013)은 범죄행동, 자살 시도, 인터넷 중독이나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심각한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특히 아동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의 부정적 결과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적 위축을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든다고 보았다(김윤경·박주희 2018: 94 재인용).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위축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시기에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이중적 정체성의 변화를 겪을 수 있는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다문화 청소년패널을 통한 8년간의 발달추이 분석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위축이 증가하며 우울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양계민 외 2020: 203)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사회적 위축 수준이 더 높고 지속적으로 고착화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김효선(2020), 이형하(2019) 등은 이중문화 환경으로 인한 적응과 소외로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청소년시기 사회적 위축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사회적 위축을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시기에 필연적 과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는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위축과 관련해서는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는 미비한 편이며,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위축을 종속변수로 고려하기보다는 선행변수로 접근하여 사회적 위축을 독립, 매개변수의 시각에서 바라본 연구(김동순 외 2020; 차한솔 2020; 최효식·연은모 2020; 홍나미·박현정 2017)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비다문화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고(김윤경·박희희 2018: 94), 특히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신체만족도를 다룬 바 있고, 사회적 위축, 부정적인 낮은 자존감 등을 경험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위축을 보았다(김동순 외 2020: 94; Rubin et al. 2009).

이처럼 신체만족도는 사회적 위축, 사회적 관계 등 사회적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신체만족도는 용모와 관련된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평가(김영미 2020: 57)를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의 집중적 관심과 주의의 대상으로써 자신을 인지하는 특징과 연관되는데 청소년기에 신체는 단순한 생리학적 ‘몸’ 그 이상의 의미로 작용한다(김은혜 외 2021: 3).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하여 외국인 부모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과 외모의 차이, 그리고 언어능력 및 사회경제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위험요인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현아 2020: 60). 이런 면에서 선행연구들 역시 다문화 가정 2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는 그들을 바

라보는 편견과 차별적 사회적 시선이 포함되어 있고(Metildi et al, 1984) 이러한 차별은 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김동순 외 2020: 92). 다문화 청소년은 외모 차이로 인한 편견이나 따돌림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또래와 다른 외모로 심각한 고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며(박미숙·이미정 2014) 이로 인해 학교생활의 부적응,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이윤정 외 2013)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결국 신체만족도가 심리적 혼란, 대인관계의 어려움, 낮은 자존감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으로 사회적 위축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위축과 청소년활동의 관계

청소년에게 학교는 하루 생활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곳이며 친구, 교사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장소로 심리적, 사회적 역량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미래뿐만 아니라 일탈 감소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기제가 되는데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적 요인, 학교환경 요인과 더불어 체육활동, 여가활동, 동아리활동 등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제시한다(전명순·김태균 2016: 19). 청소년활동은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소년정책의 중요 과제로 자리 잡아 왔으며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다양화, 세분화되었고,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강화되고 있다(도종수·성준모 2013: 146). 청소년기본법 제3조 3호에서도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기반하여 자기계발활동, 모험개척활동, 교류활동, 건강·보건활동, 문화·예술활동, 과학·정보활동, 봉사활동, 환경보존활동, 직업체험활동의 9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입시위주의 경쟁지향적 교육, 규범의 해체, 이와 관련한 청소년 일탈의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활동이 부각되면서 그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사회성에 대한 선행연구도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활동이 사회적응력 향상, 발달과업 수행, 역량 발전 등과 연관이 있다고 보며(도중수·성준모 2013: 147), 특히 사회적 자원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Brown 2007; Kombarakaran 2002). 또한 청소년활동은 자신감, 자기통제 등 자아존중감과도 관련이 있으며(조아미 2004), 사회적 역량인 타인이해능력, 집단 의식 등과도 연관되고(김진호 외 2004), 공동체 의식, 타인 배려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도중수·성준모 2013: 149). 무엇보다 청소년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학교폭력, 비행, 다문화 차별, 사회 통합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청소년활동 참여는 청소년의 부정적인 경험이 청소년의 삶의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켜주는 기제로서 검증되어 왔기 때문이다(최선아 2020: 61). 즉 선행연구들은 청소년활동의 초점이 청소년기의 문제예방이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청소년활동은 사회화과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학교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 사회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면에서 청소년활동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더욱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청소년활동은 이미 문화예술, 건강보건, 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문화 청소년에게 효율적인 청소년활동 유형을 살펴보고 강화할 수 있는 활용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긍정적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의 사회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방면에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다문화 청소년에게 청소년활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사회참여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김명일·임경미 2013)와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에서의 청소년활동 참여의 조절효과(최선아 2020) 분석 등은 살펴볼 수 있었지만,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검

중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문제점을 찾고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완화시키기 위한 개입점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청소년활동 참여는 단순한 체험활동의 의미를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에 관여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러한 청소년 참여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구성원임을 느낄 수 있고(최선아 2020: 61),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활동 참여가 외모에 대한 차별, 편견적 시선과 연관된 신체만족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 연구는 신체만족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청소년활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때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9개의 하위영역으로 세분화한 분석을 시도한다.

3) 신체만족도와 청소년활동의 관계

신체만족도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적 준거, 환경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만큼 청소년활동과 같은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와 관련된 대표적 청소년활동 요인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한 체력, 신체만족도 향상(맹미숙 외 2021)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박순진(2021)도 스포츠 활동 참여가 신체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유지후·고정훈(2021)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만족도는 또래집단과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며, 농구, 댄스, 각국의 문화체험 활동 등의 동아리 활동 및 리더십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체험 활동, 신체적 활동 등과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특히 스포츠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새비지 등(Savage et al. 2009)도 신체적 활동이 청소년의 외모만족, 자존감 등과 긍정적으로 연관된다고 보았고, 령외(Leng et al. 2020)도 신체만족도와 신체활동은 복잡한 관계이지만(Prichard

and Tiggemann 2008) 신체활동이나 운동 등이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불만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벨라(Beller 2013)는 정규 학교 프로그램이 아닌 방과 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자 청소년들이 신체만족도,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하며 특별활동 참여의 긍정적 효과 검증을 통해 청소년활동과 신체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신체만족도와 청소년활동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 있어 청소년활동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변수간 인과관계로 설정된 이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는 신체만족도이고, 종속변수는 사회적 위축으로, 조절변수는 청소년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소득 수준, 어머니 학력 수준, 아버지 학력 수준 그리고 월평균 소득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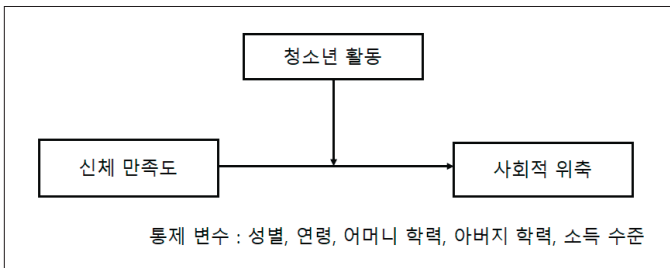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3.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다문화 청소년패널(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1기 데이

터를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 2011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을 기준으로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를 기획하였고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2020년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1기 데이터패널로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 2,537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4,452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1단계에서 16개 시·도에 기준을 두고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선정하였고, 2단계에서 확률비례추출법을 통해 총 전체 모집단 중 35.9%인 1,625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10). 따라서 이 연구는 2011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 다문화 청소년패널 1기 자료 중 연구대상자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8차년도 데이터로 총 1,197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범주	빈도(명)	백분율(%)
성별 (n=1,197)	남학생	587	49.0
	여학생	610	51.0
나이 (n=1,197)	16세	90	7.5
	17세	1,064	88.9
	18세 이상	43	3.6
부모 외국인 여부 (n=1,197)	아버지	37	3.1
	어머니	1,154	96.4
	아버지 + 어머니	4	0.3
	모두 한국인	2	0.2
아버지 학력수준 (n=1,147)	중학교 졸업	360	31.4
	고등학교 졸업	594	51.8
	대학교(2-4년) 졸업	183	16.0
	대학원 졸업	10	0.9
어머니 학력수준 (n=1,195)	중학교 졸업	133	11.1
	고등학교 졸업	565	47.3
	대학교(2-4년) 졸업	492	41.2
	대학원(석박사) 졸업	5	0.4

월평균 소득수준 (n=1,174)	100만원 이하	71	6.0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777	66.2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296	25.2
	500만원 이상	30	2.6

8차년도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을 본인 또는 가족이 이주의 배경을 가지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을 제외한 집단(양계민·강경균 2017: 21; 양계민 외 2020: 23 재인용)으로 정의함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8차년도의 다문화 청소년 개념에 기반한다.⁴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197명의 다문화 청소년이며, 남학생이 49%(587명), 여학생이 51%(610명)이다.

2)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사회적 위축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적 위축은 타자와의 관계, 즉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긴장감을 의미하며 제8차 다문화 청소년패널에서 사회적 위축에 관한 측정은 김선희·김경연(1998)의 척도를 이경상 외(2011)가 수정, 보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35)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어색하다' 외 5개 문항이며 응답 범주는 총4개의 리커트 척도(1번=전혀 그렇지 않다, 2번=그렇지 않은 편이다, 3번=그런 편이다, 4번=매우 그렇다)로 이뤄졌다.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5개 문항에 대한 요인 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문항의 요인적재값

4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문화가족의 증가 현상을 반영하듯 복잡하고 다양하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나 결혼귀화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부모 중 한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문화 학생'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포함된다(양계민 외 2020: 21-22).

은 .831~.888로 분포되며 1개 요인으로 나타났고,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908을 보였다.

(2) 독립변수: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는 자신의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으로 외모와 관련된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송인섭(1983)이 개발한 자아개념 척도를 임재련(1988)이 요인분석 후 재구성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휘를 수정한 한상분(1992)의 척도에서 일부 발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34)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1. 나는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 '3.나는 신체모습 중 몇 군데를 바꾸고 싶다', '4.나는 좋은 느낌을 주는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5.나는 현재의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6.나는 나의 외모 때문에 괴롭다' 등 6문항이며 응답척도는 1번=전혀 그렇지 않다, 2번=그렇지 않은 편이다, 3번=그런 편이다, 4번=매우 그렇다 등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신체만족도 변수의 요인 구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3번과 6번 2문항을 응답 척도를 고려, 역코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번, 2번, 4번, 5번 문항이 요인1로(요인적재치 .799~.840), 3번과 6번 문항이 요인2(요인적재치 .788~.835)로 나타나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요인1과 요인2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1의 신뢰도값(Cronbach's alpha)은 .875로 나타났지만 요인2의 신뢰도값은 .521로 .6보다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요인1을 '신체만족도'로 명명하여 활용하였다.

(3) 조절변수: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전명순 2017: 18) 사회적 변화와 함께 변화, 발전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패널에서 청소년활동은 8차년도에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항목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구상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확정되었는데 각 문항은 문화·예

술활동, 과학·정보활동, 모험·개척활동 등 9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처럼 청소년활동은 문화, 건강, 진로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참여여부(1=예, 2=아니오)를 질문하였고, 다시 참여한 경우에 한해 참여 횟수(1=일년에 1-2회, 2=한학기에1-2회, 3=한달에 1-2회, 4=일주일에 1-2회 이상)를 4점 응답 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청소년 활동 관련 첫 번째 질문인 참여여부를 2번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는 두 번째 질문인 참여 횟수에 대한 응답을 ‘0’번으로 하여 2개 문항을 1개의 새로운 문항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이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완화 또는 강화 요인을 찾는 데 있으므로 각 청소년활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문항을 하나의 개별요인으로 보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2>를 통해 이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도구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표 2. 측정도구 분석

변수	측정 문항	응답 범주
종속 (사회적 위축)	나는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어색하다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나는 수줍어 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1-4
독립 (신체 만족도)	나는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느낌을 주는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의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1-4
조절 (청소년 활동)	문화·예술활동(문화행사, 문예창작, 독서토론활동, 미술·음악 활동 등) 과학·정보활동(모형·로봇활동, 컴퓨터·인터넷 활용활동, 우주천체활동 등) 모험·개척활동(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수상활동, 극기훈련활동 등) 봉사활동(일손돕기활동, 돌봄·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후호활동 등)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모의창업활동, 경제캠프활동, 진로탐색활동 등) 교류활동(국제교류활동, 도시·농촌교류활동,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 등) 건강·보건활동(신체단련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자기(인성)개발 활동(표현능력개발·자기표현활동, 자기탐구·자기존중감 등) 환경보존활동(생태체험활동, 환경탐사활동, 재활용공예활동 등)	1-4

(4) 통제변수

다문화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1=남성, 2=여성)과 나이를, 그리고 사회학적 특성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수준(1=중졸 이하, 2=고졸, 3=2-3년제 대학졸업, 4=4년제 대학졸업, 5=석사 포함 대학원졸업), 월평균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 방법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23.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청소년활동의 조절효과를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변수(신체만족도×청소년활동)를 만들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상호작용변수는 조절효과를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지 위하여 먼저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하여 적용하였다.

4. 연구 결과

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신체만족도, 청소년활동 변수 특성 분석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값은 <표 3>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사회적 위축의 경우 평균 11.99(sd.=3.54)로 나타나 중간값 이상을 보였으며, 전체 대상자의 8.6%(n=103)은 사회적 위축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나, 2.2%(n=26)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신체만족도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평균값 11.34(sd=2.4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신체만족도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청소년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48.7%(n=583)가 참여했다고 응답한 봉사활동 참여 경험수준(mean =1.15, sd.=1.3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8%(n=58)만이 참여한 국제 교류활동,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 등의 교류활동의 참여경험 수준(mean=.06, sd.=.3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신체만족도, 청소년활동 변수 특성

측정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적 위축		11.99	3.54	5	20
신체만족도		11.34	2.43	4	15
청소년 활동	문화·예술	1.03	1.32	0	4
	과학·정보	0.35	0.95	0	4
	모험·개척	0.20	0.57	0	4
	봉사	1.15	1.33	0	4
	진로탐색·직업체험	0.55	0.91	0	4
	교류	0.06	0.34	0	4
	건강·보건	0.79	1.15	0	4
	자기(인성)개발	0.22	0.66	0	4
	환경보존	0.13	0.51	0	4

2)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신체만족도, 청소년 활동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은 부적(-)인 상관관계($r = -.326,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신체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신체만족도와 청소년활동의 경우 자기개발 활동을 제외하고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만족도 수준이 높은 경우,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의 절대값이 .80을 넘을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분석에서는 .80을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

표 4.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신체만족도, 청소년 활동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a	b	c1	c2	c3	c4	c5	c6	c7	c8	c9
a	1										
b	-.326***	1									
c1	.091**	-.081**	1								
c2	.063*	.016	.153***	1							
c3	.126***	-.058*	.195***	.129***	1						
c4	.113***	-.043	.124***	.110***	.103***	1					
c5	.120***	-.059*	.227***	.209***	.219***	.227***	1				
c6	.081**	-.088**	.068*	.121***	.195***	.113***	.203***	1			
c7	.112***	-.020	.267***	.208***	.192***	.210***	.403***	.135***	1		
c8	.046	-.052	.109***	.165***	.191***	.158***	.341***	.208***	.334***	1	
c9	.087**	-.061*	.118***	.143***	.158***	.187***	.276***	.269***	.247***	.374***	1

*p<.05, **p<.01, ***p<.001.

a=신체만족도, b=사회적 위축, c1=문화예술활동, c2=과학·보건활동, c3=모험·개척활동, c4=봉사활동, c5=진로활동, c6=교류활동, c7=건강·보건활동, c8=자기개발활동, c9=환경보존활동.

3)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만족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11.182(p<.001)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만족도 수준이 사회적 위축 수준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신체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은 낮아지고, 신체만족도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신체만족도의 설명력 수준은 11%(R²)로 나타났다.

표 5. 신체만족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β	T
통제변수	상수	25.621	5.085		5.038***
	성별	.197	.206	.027	.953
	나이	-.431	.297	-.041	-1.452

통제변수	아버지학력	-.200	.120	-.050	-1.673
	어머니학력	-.119	.120	-.029	-.993
	월평균 소득	-.002	.001	-.064	-2.180*
독립변수	신체만족도	-.477	.043	-.317	-11.182***
종속변수	사회적 위축				
R2(adj,R2)/ F	.116(.111)/ 24.000***				

*p<.05, **p<.01, ***p<.001.

4)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청소년활동의 조절효과 분석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회적 위축을 종속변수로, 신체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청소년활동의 조절효과를 각각 3단계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청소년활동의 9개 범주를 각각 별도의 조절변수로 구성하여 총 9회의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에 의한 조절효과 검정을 진행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을 보면,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신체만족도 변수만 투입하여 주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2단계에서는 모형1에 추가적으로 청소년활동의 하위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인 신체만족도×청소년활동(1-9번) 변수를 모형2에 추가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활동의 하위 범주는 9가지이므로 각각 9가지의 조절변수가 1번부터 9번까지 활용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의한 조절효과 검정을 위해서는 R제곱의 설명력이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증가해야 하고, 즉 R제곱의 변화량이 유의적이며 상호작용항의 계수 또한 유의미해야 한다(배병렬, 2018: 65).

이에 따라 1번-9번의 위계적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과학·정보활동($\beta = -.058, p < .05$), 3.모험·개척활동($\beta = -.091, p < .01$), 5.진로탐색활동($\beta = -.097, p < .01$), 7.건강·보건활동($\beta = -.077, p < .01$)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상호작용항의 모형에서 R제곱의 설명력이 순차적으로 증

표 6. 신체만족도, 사회적 위축,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절효과 분석

상호작용	모형	R2	adj.R2	F	통계량 변화량	
					R2변화량	F변화량
신체만족도× 문화·예술활동(1) $\beta = -.011$	1	.116	.111	24.400***	.116	24.400
	2	.117	.111	21.054***	.001	.977
	3	.117	.110	18.425***	.000	.142
신체만족도× 과학·정보활동(2) $\beta = -.058^*$	1	.116	.111	24.000***	.116	24.400
	2	.117	.112	21.225***	.002	2.038
	3	.121	.115	19.158***	.003	4.256
신체만족도× 모험·개척활동(3) $\beta = -.091^{**}$	1	.116	.111	24.400***	.116	24.400
	2	.116	.110	20.907***	.000	.071
	3	.123	.117	19.550***	.007	8.997
신체만족도× 봉사활동(4) $\beta = -.052$	1	.116	.111	24.400***	.116	24.400
	2	.116	.110	20.897***	.000	.010
	3	.110	.112	18.754***	.003	3.430
신체만족도× 진로탐색활동(5) $\beta = -.097^{**}$	1	.116	.111	24.400***	.116	24.400
	2	.116	.110	.058	.000	.068
	3	.125	.119	11.631	.009	11.631
신체만족도× 교류활동(6) $\beta = -.037$	1	.116	.111	24.400***	.116	24.400
	2	.120	.114	21.660***	.004	4.728
	3	.121	.114	19.136***	.001	1.411
신체만족도× 건강·보건활동(7) $\beta = -.077^{**}$	1	.116	.111	24.400***	.116	24.400
	2	.117	.112	1.511	.001	1.511
	3	.123	.117	7.307	.006	7.307
신체만족도× 자기개발활동(8) $\beta = -.034$	1	.116	.111	24.400***	.116	24.400
	2	.117	.112	21.201***	.001	1.889
	3	.118	.112	18.734***	.001	1.411
신체만족도× 환경보존활동(9) $\beta = -.012$	1	.116	.111	24.400***	.116	24.400
	2	.117	.111	21.124***	.001	1.416
	3	.117	.111	18.491***	.000	.000

*p<.05, **p<.01, ***p<.001.

모형1-예측값: (상수), 통제변인, 신체만족도.

모형2-예측값: (상수), 통제변인, 신체만족도, 청소년활동(1-9).

모형3-예측값: (상수), 통제변인, 신체만족도, 청소년활동(1-9), 신체만족도×청소년활동(1-9).

가하면서 R제곱의 변화량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교류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환경보존활동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분석결과는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가 과학·정보활동, 모험·개척활동, 진로탐색활동, 건강·보건활동 등의 청소년활동에 의해 조절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5.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결혼이주민 및 다문화 2세 가정의 확대와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사회적 과제라는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관심을 두고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감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무엇보다 청소년활동이 조절변수로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핵심적인 청소년기 발달과업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심리적 평가, 주관적 인식 사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신체만족감이나 사회적 위축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준거들과 결부되어 있는 만큼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에게도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은 쉽게 변하지 않는 일관적인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나이와 신체만족도는 부적인 상관성을 보이고, 사회적 위축은 정적인 상관성을 보인다는 점에도 관심을 두었다. 다시 말해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은 지속성과 상관성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시기는 신체적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외모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사회성 형성이 완성되어가고 이 시기의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도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예측 요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때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은 타자와의 관계 또는 제도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학업과정이나 학교 현장이 아닌 개인의 관심이나 장점을 발

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방과 후 프로그램인 청소년활동의 역할에 관심을 두었다. 여기에는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여나 성과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는 현실도 기인한다. 청소년활동은 지난 2006년부터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모험, 진로, 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고 청소년활동의 성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며 대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청소년활동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여 사회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다문화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성과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며 이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찾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은 교육부에서 규정된 9개 유형을 그대로 반영하여 각 유형별로 조절변수를 구성하고 이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사회적 위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만족도가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는 변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외모 등 신체만족도는 정서발달, 학업 성취 등에 악영향을 미치며(오세현·민예지 2021),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 외모에 만족하지 않으면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면서 압박감,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이진숙 외 2012)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사회적 위축을 선행 변수, 즉 독립 변수로 보며 심리적 행복(전선희 외 2018), 공격성(우유라·노충래 2014; 이원식 2018; Agnew 1992)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하였으나 이 연구는 사회적 위축을 내면화된 가치관, 행동이라고 보며, 사회적 위축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자 한 점에서 차별화하였다.

둘째, 무엇보다 이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신체만족도의 관계에 있어서 청소년활동의 조절효과가 하위요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과학·정보활동 및 진로탐색활동, 모험·개

적활동 및 건강·보건활동이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 관계를 조절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변수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활동, 자기(인성)계발 활동관련 조절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과학·정보활동, 진로탐색활동, 모험·개척활동, 건강·보건활동 조절변수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영화, 연극 보기 등 문화행사 참여, 환경캠페인 참여, 자기탐구, 마음수련활동 등과 같은 자기계발 분야 및 관심 분야 관련 활동 보다는 진로 탐색, 직업현장체험활동 등을 비롯하여 신체단련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상호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진로와 관련된 관심 분야와 신체적 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청소년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성호 외(2015)의 연구에서도 문화예술활동, 건강·보건활동 및 직업현장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가 다른 청소년활동에 대한 욕구보다 많다고 설명했다(문성호 외 2015: 153).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의 효과와 가치에 대한 총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변화하는 청소년활동이 점검해야 할 가치, 객관적 필요성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박경미 외 2020: 96),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 연구가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유의미한 청소년활동 유형을 검증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활동 경험은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이시연 2019) 작용하며, 청소년활동은 시대적 변화와 청소년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이 있는만큼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문제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긍정적인 효과 창출과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면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 교실, 관심 분야와 연관된 직업 체험 활동 프로그램 등의 확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관계 형성이 완성되어가는 고등학생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초기 단계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된다면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구

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청소년 시기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의미한 청소년활동의 유형을 설명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검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신체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길 기대한다.

교신: 이윤영(한라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younyoung.lee@halla.ac.kr)

Correspondence: Youn Young Lee(Assistant Professor, Liberal Arts and Convergence, College of Humanities, Halla University)(younyoung.lee@halla.ac.kr)

2022.04.15 접수, 2022.05.16 심사, 2022.05.23 게재확정

참고문헌

- 교육부, 2020,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https://www.moe.go.kr>.
- 교육부, 2021,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https://www.moe.go.kr>.
- 김나영, 2021, 다문화교육의 현황 및 실태, 교육개발, 2021 가을, 69-73.
- 김동순 외,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4, 91-125.
- 김명일·임경미, 2013,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사회참여가 가지는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65-91.
- 김상욱, 2010, 인구 구조 변화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 국회입법조사처.
- 김선희·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영미,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육아정책연구, 14(2), 55-74.
- 김윤경·박주희, 2018,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의 전환기 동안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미치는 부모의 과잉간섭의 영향과 또래유능성의 동시 및 지연효과, 아동학회지, 39(4), 93-105.
- 김은혜 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학교생활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 인과관계, 한국아동복지학, 70(3), 127-154.

- 김진호 외, 2004,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현아, 2020,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 관련 변인의 군집유형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과 신체 및 삶의 만족도 차이, *현대사회와 다문화*, 10(4), 59-89.
- 김효선, 2020,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도중수·성준모, 2013,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45-173.
- 류도희, 2022,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9(3), 271-298.
- 맹미숙 외, 2021,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19(4), 127-134.
- 문성호 외, 2015, 한국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의 특성, *청소년학연구*, 22(4), 133-157.
- 박경미 외, 2020,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대한 유형화 분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95-121.
-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1), 1-15.
- 박미숙·이미정,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원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3), 149-174.
- 박순진, 2021,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중서, 2022, 2022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2년 1월, 73-86.
- 배병렬, 2018, SPSS/Amos/LISREL/SmartPL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 *도서출판청람*.
- 송인섭, 1983, *인간심리학과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송인섭, 1989, *인간심리와자아개념*, 양서원.
- 양계민 외, 2020, 2020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강경균, 2017,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V: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세현·민예지,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외모만족도와 우울감의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5, 1-26.
- 유우라·노충래,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위은하, 2015, 청소년의 신체비교와 신체만족도가 대인관계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존감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2), 209-218.
- 유지후·고정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 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11(10), 314-321.
- 이경상 외, 201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원식, 2018,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3), 75-108.
- 이윤정 외,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5(5), 733-742.
- 이진숙 외, 2012, 남녀 중학생의 체중상태, 체형인식 및 만족에 따른 비만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한국생활과학회지, 21(6), 1223-1233.
- 이형하 외,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사회적위축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2), 183-184.
- 임재련, 1988, 청소년 자아 개념의 발달적 특성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명순, 2017, 청소년활동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향후 과제 제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3(2), 17-40.
- 전명순·김태균, 2016,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 및 컴퓨터 이용빈도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2(1), 17-42.
- 전선혜 외, 2018, 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6(1), 33-44.
- 정나은·김원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성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위축을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59-69.
- 조아미, 2004,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145-172.
- 주계순·권일남, 2018,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4(2), 1-25.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국내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을 현황, <https://www.edu4mc.or.kr/guide/stat.html>.
- 최선아, 2020,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6(3), 57-76.
- 통계청 e-나라지표, 인구변화, <https://www.index.go.kr>.
- 통계청 보도자료, 2021. 11. 08, 2020년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한국교육개발원, 2021,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chedi.re.kr/index>.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다문화 청소년패널(MAPS) 1기 데이터 제1-9차 유저가이드.
- 한상분, 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Barzeva, S. A. et al., 2019,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Measurement Issues. *Normative Development, and Distinct Trajectories*, 47(5), 865-879.
- Beller, J. M., 2013,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s and High School Girls' Psychosocial Behavior, Grand Canyon University Dissertations Publishing.
- Bowker, J. et al., 2012,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In R. J. R. Levesque (Ed.), *Encyclopedia of adolescence*, New York: Springer, 2817-2824.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
- Dohnt, H. and M. Tiggemann, 2006, The contribution of peer and media influences to the development of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young girls: A prospective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42(5), 929-936.
- Hamasaki, Yukiko et al., 2020, Identifying Social Withdrawal (Hikikomori) Factors in Adolescents: Understanding the Hikikomori Spectrum.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52, 808-817.
- Hinde, R. A., 1987, *Individuals, Relationships and Culture: Links Between Eth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mbarakaran, F. A., 2002,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adolescent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school truancy.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Leng, H. K., et al. 2020, Body image, physical activity and sport involvement: A study on gender differences. *Physical Culture and Sport*, 85(1), 40-49.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tildi, L. A. et al., 1984, Crystalloid versus colloid in fluid resuscitation of patients with severe pulmonary insufficiency. *Surgery, gynecology & obstetrics*, 158(3), 207-212.
- Nelson, L. J., 2013, Going it alone: Comparing subtypes of withdrawal on indices of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in emerging adulthood: Social withdrawal in emerging adulthood. *Social Development*, 22(3), 522-538.
- Prichard, I. and M. Tiggemann, 2008, Relations among exercise type, self-objectification, and body image in the fitness centre environment: The role of reasons for exercis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6), 855-866.
- Rubin, K. H. and Jens B., 1993, Asendorpf,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Conceptual and definitional issue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ren*. 3-17.
- Rubin, K. H. et al.,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Savage, J. S. et al., 2009, Adolescent body satisfaction: the role of perceived parental encouragement for physical a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6(90).
- Watson, J. and D. Nesdale, 2012.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withdrawal, and loneliness in young adul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2(8), 1984-2005.
- Youngs, D., 2013, A Social Withdrawal Component in Schutz's FIRO Model of Interpersonal Personality: Social Engagement, Control and Social Withdrawal. *Interpersona*, 7(1), 1-11.

Analysis of the Effect of Physical Satisfaction on Social Withdrawal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Youth Activities -

Youn Young Lee*

Abstract_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satisfaction and social withdrawal by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youth activities as a moderating effect. This study analyzed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 by National Youth Policy. The results from the hierarchical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hysical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negative effect on social withdrawal and a positive effect on youth activitie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effect of youth activi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satisfaction and social withdrawal, it was examined that science-information activities, adventure-development activities, career-job experience activities, and health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it found factors can predict social contraction related to Korean socia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verified their paths.

Keywords_Multicultural society, Adolescents, Physical satisfaction, Social withdrawal, Youth activities

* Halla University, Sociology, Assistant Professor, younyoung.lee@halla.ac.kr